

## 2020년 코로나-19 관련 한국 주요 신문에서 방역관련 주요 주제어 분석

김민영, 구보경, 윤보라, 백진원, 이무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Analysis on the Key Words related to Healthcare Issue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Major Korean Newspapers, 2020

Min-Young Kim, Bo-Kyung Gu, Bo-Ra Yoon, Jin-Won Baek, Moo-Sik Le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 Abstract =

**Background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main key words of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COVID-19 in 2020 for each category of quarantine measures according to the epidemic period of COVID-19.

**Methods:** We analyzed articles related to COVID-19 in three major newspapers of Korea between February 17 and December 31, 2020. We targeted the front page articles on Mondays and Thursdays.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confirmed through the chi-square test.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in key words for each category of quarantine measures,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were the most common at 54.3%, followed by 3Ts(test, tracing, treatment and vaccine) at 31.9%. In the category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social distancing was the most common at 33.9%. In the categories such as 3Ts(test, tracing, treatment) and vaccine, diagnostic tests were the most common at 41.8%.

**Conclusions:** It was identified that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were the most common,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eporting of main key words by category of quarantine measures for each epidemic period related to COVID-19 in 2020.

**Keywords:** COVID-19, Key words, Newspapers, Quarantine measures, Epidemic period

\* Received June 9, 2021; Revised September 23, 2021; Accepted September 27, 2021.

\* Corresponding author: 이무식,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우. 35365)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Moo-Sik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Korea

Tel: +82-42-600-8670, Fax: +82-42-600-6401, E-mail: mslee@konyang.ac.kr

##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불명의 폐렴이 다수 발생하였고,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새롭게 출현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임을 확인하였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는 해외유입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1월 23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기며 급증하자 우한 지역을 락다운(lock-down)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되어 조금씩 확진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수 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퍼지면서 제1차 유행을 맞게 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과 높은 진단율을 바탕으로 제1차 유행의 확산세를 저지시키며 900명을 넘어섰던 확진자수가 5월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안정되었다. 2020년 5월 7일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며 안정권에 들어섰던 코로나 19 감염이 교회와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필두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제2차 유행에 접어들었다. 이후 2차 유행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신규 확진자 수를 완전히 떨어뜨리지는 못한 채 2020년 11월 제3차 유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3차 유행은 그동안의 유행과는 다르게 한 지점을 시발점으로 하여 확산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누적되어 유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2021년 3월에 이르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년간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세계 각국들이 보건 의료 부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물론이다. 그에 따른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특히, 유행과 소강시기 등

시시각각 변하는 역학적, 사회적 상황과 국면에 따라 수많은 기사들이 다루어졌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 보건당국과 언론 등의 사회적 관여와 국민과의 소통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1]. 또한 보건당국의 보건 의료 정책의제 설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흐름과 내용 분석을 정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는 2020년 1년 동안의 코로나-19의 진행 경과를 한국 언론에서 이슈 및 쟁점시되었던 주제와 사안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 19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탐구하고 나아가 장기간의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포스트 코로나 사회 건설, 향후 감염병 도래시의 대처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되기를 희망해 보았다.

## 자료 및 방법

이 연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관련 신문 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대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용 분석법은 일정한 범주체계를 활용하여 어떤 주제 내용 등에 관련 가설에 의한 자료를 획득하고 그 내용을 수량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3].

국내에서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시기인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코로나 관련 기사를 연구자료로 하였다. 비교 분석 구간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3번 유행시기(wave)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3번의 유행기와 그사이 2번의 휴지기로 나누어 5구간으로 분류하였다. 비교 분석기간은 제1차 유행기(2월 17일부터 4월 12일 사이), 제1차 휴지기(4월

13일부터 8월 9일 사이), 제2차 유행기(8월 10일부터 10월 4일 사이), 제2차 휴지기(10월 5일부터 11월 8일 사이), 제3차 유행기(11월 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등 다섯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제1차 유행기는 주당 확진자 수가 200명이 초과된 시기인 2월 17일을 시작으로 종료일은 다시 200명 이하의 내려간 4월 13일까지였고, 제2차 유행은 200명 미만으로 유지되던 확진자수가 다시 400명 이상으로 증가된 8월 10일부터 이후 주당 확진자수가 400명 이하로 회복되지는 않으나 주당 확진자수 그래프가 변곡점을 지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10월 5일 전날인 10월 4일로 하였다. 제3차 유행의 시작일은 주당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한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대상 신문사는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여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세가지 신문을 선정하였다. 신문 기사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 지면 기사를 다운받았으며, 제1면에 있는 기사에 한정하여 월요일, 목요일 일자의 기사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주말과 주중의 상황을 반영하는 유리한 요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요일에 코로나 관련 기사가 없거나 휴간인 경우에는 월요일인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 순으로, 목요일인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기사 순으로 대체하였다. 다만, 해당 주에 요일별로 순차적으로 대체하여도 코로나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주 2일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직접 수집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이는 전수조사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검색과 같은 방식의 자료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는 비약물적 조치, 3Ts(진단, 추적, 치료)와 백신, 그리고 기타 보건관련 이슈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약물적 조치에는 해외입국 및 제한조치,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시설 제한, 영업제한, 마스크와 손씻기 등이었으며, 3Ts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병상, 치료제 및 백신 등이었고, 기타 보건관련 이슈로는 종교시설, 요양 시설, 사회적 낙인, 인포데믹 등이었다. 이들 주요 키워드는 이 연구를 위한 예비 작업에서 주요 신문에서 보도된 다빈도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여 범주화한 것이며, 입력은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분석입력자 4명의 전원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간별 주요 키워드 사용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통계분석은 R 3.6.3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설정하였다.

## 결 과

전체 분석대상 기사 건수는 총 571건으로 제1차 휴지기에서 163건(28.5%), 제1차 유행기 149건(26.1%), 제3차 유행기 115건(20.1%) 등 순이었다. 신문사별 보도 건수는 중도 성향 신문이 207건(36.3%)로 가장 많았고, 보수와 진보 성향 신문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유행기간별 보도 건수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g. 1).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31.9% 순이었다. 유행기간별 기사의 건수는 제1차 휴지기가 28.5%로 가장 많았으며, 제1차 유행기 26.1% 순이었다. 비약물적 조치 기사는 제1차 휴지기 30.6%, 제1차 유행기 23.5% 순이었고, 3Ts 제1차 유행기 28.6%, 제1차 휴지기 28.0% 순이었고, 기타 이슈는 제1차 유행기가 30.4%, 제2차 유행기 24.1% 순으로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 (Table 1).

Number of articles(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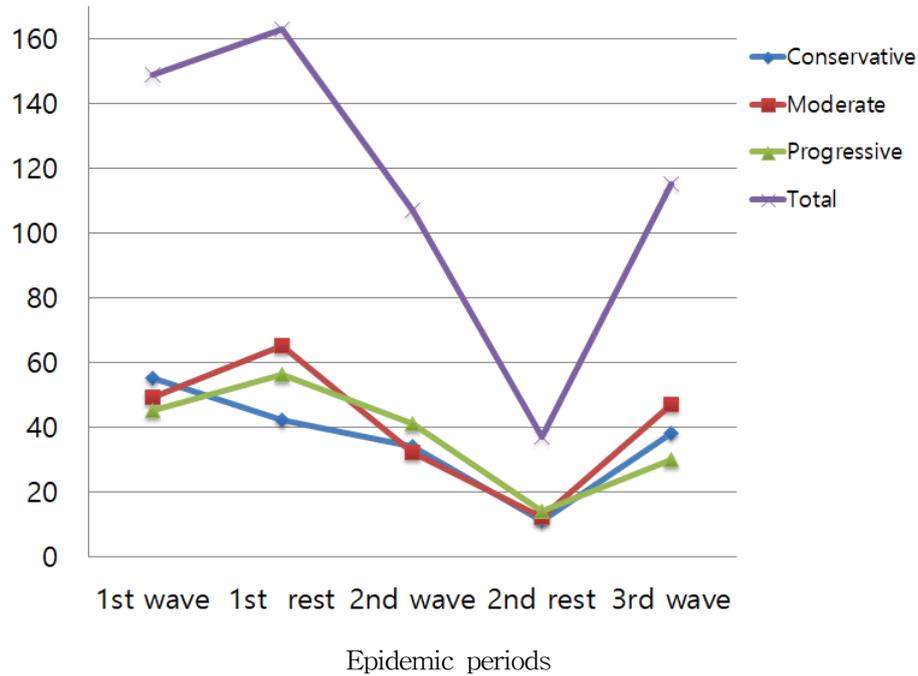


Figure. 1. Frequency distribution of articles reported by major Korean newspaper media company to be analyzed by COVID-19 epidemic periods, 2020. Epidemic periods were consisted of 1st wave(17 Feb.~12 Apr.), 1st rest(13 Apr.~9 Aug.), 2nd wave(10 Aug.~4 Oct.), 2nd rest(5 Oct.~8 Nov.), and 3rd wave(9 Nov.~31 Dec.).

Table 1. Analysis on the key words related to healthcare issue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VID-19 in the front page of major Korean newspapers, 2020.

Key words	Total	Epidemic period					p-value*
		1st wave (17 Feb. ~12 Apr.)	1st rest (13 Apr. ~9 Aug.)	2nd wave (10 Aug. ~4 Oct.)	2nd rest (5 Oct. ~8 Nov.)	3rd wave (9 Nov. ~31 Dec.)	
Total	571 (100.0)	149 (26.1)	163 (28.5)	107 (18.7)	37 (6.5)	115 (20.1)	0.017
NPIs <sup>†</sup>	310 ( 54.3)	73 (23.5)	95 (30.6)	58 (18.7)	28 (9.0)	56 (18.0)	
3Ts & vaccines <sup>‡</sup>	182 ( 31.9)	52 (28.6)	51 (28.0)	30 (16.5)	3 (1.6)	46 (25.3)	
Other health issues <sup>§</sup>	79 ( 13.8)	24 (30.4)	17 (21.5)	19 (24.1)	6 (7.6)	13 (16.5)	

\* by chi-square test

<sup>†</sup>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sup>‡</sup> test, tracing, treatment and vaccine

<sup>§</sup> religion facilities, long-term care facilities, social stigma, infodemic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비약물적 조치 범주에서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 제한운영이 17%, 영업제한 14.2%, 마스크와 손씻기 12.3% 등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1차 휴지기에 30.5%, 제3차 유행기에 24.8% 등 순이었고, 공공시설 제한 운영은 제1차 휴지기 47.2%, 제2차 유행기 26.4% 순, 영업제한은 제1차 휴지기 31.8%, 제3차 유행기 36.4% 순이었고, 마스크와 손씻기는 제1차 휴지기에 34.2%로 가장 많았고, 제1차유행기와 제2차 유행기에 28.9% 등이었고, 격리와 해외입국 제한조치 등은 제1차 유행기에 66.7% 등으로 유행기별로 비약물적 조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2).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범주에서 주요 주제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진단검사가 41.8%, 역학조사 및 병상관련이 각각 20.9%였으며, 치료제 및 백신이 16.5% 등 순이었다. 진단검사는 제1차 유행기가 38.2%, 휴지기가 28.9% 등 순이었고, 역학조사는 제1차 휴지기에서 39.5%. 제1차 유행기 26.3% 순이었고, 병상은 제3차 유행기에서 44.7%, 1차 유행기 28.9% 순이었으며, 치료제 및 백신은 3차 유행기에서 40.0%, 제1차 휴지기 30.0%, 제2차 유행기 23.3% 순으로 유행기별로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주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3).

Table 2. Analysis of key words on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on the front page of major Korean newspapers in COVID-19 epidemic period, 2020

Key words	Total	Epidemic period					p-value*
		1st wave (17 Feb. ~12 Apr.)	1st rest (13 Apr. ~9 Aug.)	2nd wave (10 Aug. ~4 Oct.)	2nd rest (5 Oct. ~8 Nov.)	3rd wave (9 Nov. ~31 Dec.)	
Total	310 (100.0)	73 (23.5)	95 (30.6)	58 (18.7)	28 ( 9.0)	56 (18.0)	
Social distancing	105 ( 33.9)	17 (16.2)	32 (30.5)	22 (21.0)	8 ( 7.6)	26 (24.8)	
Public facilities ban or restriction	53 ( 17.1)	7 (13.2)	25 (47.2)	14 (26.4)	7 (13.2)	4 ( 7.5)	
Business restriction	44 ( 14.2)	0 ( 0.0)	14 (31.8)	8 (18.2)	6 (13.6)	16 (36.4)	0.000
Mask and handwashing	38 ( 12.3)	11 (28.9)	13 (34.2)	11 (28.9)	3 ( 7.9)	3 ( 7.9)	
Isolation and quarantine	36 ( 11.6)	24 (66.7)	6 (16.7)	3 ( 8.3)	3 ( 8.3)	6 (16.7)	
International travel & immigration restriction	21 ( 6.8)	14 (66.7)	5 (23.8)	0 ( 0.0)	1 ( 4.8)	1 ( 4.8)	

\* by chi-square test

Table 3. Analysis of key words for 3Ts(test, tracing, treatment) and vaccines on the front page of major Korean newspapers in COVID-19 epidemic period, 2020.

Key words	Total	Epidemic period					p-value*
		1st wave (17 Feb. ~12 Apr.)	1st rest (13 Apr. ~9 Aug.)	2nd wave (10 Aug. ~4 Oct.)	2nd rest (5 Oct. ~8 Nov.)	3rd wave (9 Nov. ~31 Dec.)	
계	182 (100.0)	52 (28.6)	51 (28.0)	30 (16.5)	3 ( 1.6)	46 (25.3)	
Diagnosis and test	76 ( 41.8)	29 (38.2)	22 (28.9)	7 ( 9.2)	3 ( 3.9)	15 (19.7)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38 ( 20.9)	10 (26.3)	15 (39.5)	11 (28.9)	0 ( 0.0)	2 ( 5.3)	0.000
Hospital beds	38 ( 20.9)	11 (28.9)	5 (13.2)	5 (13.2)	0 ( 0.0)	17 (44.7)	
Treatment medicine and vaccines	30 ( 16.5)	2 ( 6.7)	9 (30.0)	7 (23.3)	0 ( 0.0)	12 (40.0)	

\* by chi-square test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기타 사회적 이슈관련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종교시설이 87.3%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시설 6.3%, 사회적 낙인 5.1% 등 순이었다. 종교시설에 관련 기사는 제1차 유행기에서 29.0%로 가장 많았고, 제2차 유행기 26.1%, 제1차 휴지기 23.3% 등 순이었고, 요양시설은 제1차 유행기와 제 3차 유행기가 각각 40.0%였다(Table 4).

## 고찰

이 연구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의 유행 경과를 언론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이슈 및 쟁점시 되었던 주제어를 분석하는 내용 분석적인 연구이다. 내용분석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정보의 특징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기록에 대한 내용적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문제의 원인 분석, 영향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다. 특히, 유행과 소강시기 등 시시각각 변하는 역학적, 사회적 상황과 국면에 따라 다양한 기사들이 다루어졌다. 이는 방역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의 준비와 대응 등을 경시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기사를 대상재료로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흐름과 내용 분석을 정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기사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 분석대상 신문사는 보수, 중도 및 진보 성향의 세가지 신문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각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보수적’이며 ‘체제 안정적’ 성향인 신문으로 알려진 신문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보적’이며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신문, 그리고 이들 두 신문 사이에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가지 신문 사이에서 중도 성향의 신문은 중도적 역할을 하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총괄하여 분석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시각은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이념의 가치에 따라서 같은 문제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즉, 비약물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유행기와 휴지기 등 시기별로 이슈화되었던 방역 및 보건의료 이슈가 다름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4. Analysis of key words for social issues related with health on the front page of major Korean newspapers in COVID-19 epidemic period, 2020.

Key words	Total	Epidemic period					p-value
		1st wave (17 Feb. ~12 Apr.)	1st rest (13 Apr. ~9 Aug.)	2nd wave (10 Aug. ~4 Oct.)	2nd rest (5 Oct. ~8 Nov.)	3rd wave (9 Nov. ~31 Dec.)	
Total	79 (100.0)	24 ( 30.4)	17 (21.5)	19 (24.1)	6 ( 7.6)	13 (16.5)	
Religious facilities	69 ( 87.3)	20 ( 29.0)	16 (23.2)	18 (26.1)	5 ( 7.2)	10 (14.5)	
Long-term care facilities	5 ( 6.3)	2 ( 40.0)	0 ( 0.0)	0 ( 0.0)	1 (20.0)	2 (40.0)	N.A.
Social stigma	4 ( 5.1)	1 ( 25.0)	1 (25.0)	1 (25.0)	0 ( 0.0)	1 (25.0)	
Infodemic	1 ( 1.3)	1 (100.0)	0 ( 0.0)	0 ( 0.0)	0 ( 0.0)	0 ( 0.0)	

유행기간별 기사의 건수는 오히려 유행기간이 아닌 제1차 휴지기가 28.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그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비약물 조치가 많이 보도된 시점과 일치한다. 유행기에는 3Ts와 백신, 기타 보건의료 이슈, 격리와 해외입국 조치 등이 많이 보도되어 직접적인 사회적 이슈가 주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스크 사용 및 손씻기 등에서 국민 홍보, 캠페인 및 위험소통은 일관된 메시지가 미흡했고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5].

분석대상 신문기사에서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는 비약물적 조치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31.9% 순으로 방역의 내용 및 정부의 방역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집단면역이 없는 초기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서는 비약물적 조치 내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비약물적 조치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3.9%로 가장 많았고, 공공시설 제한운영이 17%, 영업제한 14.2%, 마스크와 손씻기 12.3% 등 순으로 크게 보면 공공시설 제한운영과 영업제한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65.1%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예방 전략이며,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요양시설, 종교시설, 입국 제한조치 등의 주제어다 기사에서 언급되는 빈도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확진자수가 늘어나면 유의미하게 기사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뉴스미디어의 환경감시 기능이 양적인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1].

마스크와 손씻기는 제1차 휴지기에 34.2%로 가장 많았고, 제1차 유행기와 제2차 유행기에 28.9% 등이었는데 이는 판데믹 초기의 과정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격리와 해외입국 제한조치 등은 제1차 유행기에 66.7% 등으로 마찬가지로 결과라 하겠다.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 분석은 진단검사가 41.8%, 역학조사 및 병상관련이 각각 20.9%, 치료제 및 백신이 16.5% 등 순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검사와 추적에 집중이 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백신확보와 치료의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서 추후의 백신확보 등의 문제로 부각될 것임을 예고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제1차 유행기의 진단검사가 주요 이슈였음을 이해가 되는 것이나 병상은 제3차 유행기에서 44.7%였고, 치료제 및 백신은 제3차 유행기에서 40.0%를 차지하여 앞선 결과와 같은 결과로 판단된다.

기타 사회적 이슈 관련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는 종교시설이 87.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1차 유행기에 이어 제2차 유행기까지 지속된 이슈로 이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요양시설 6.3%, 사회적 낙인 5.1% 등은 작은 퍼센트이지만 보건의료 이슈로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기사의 주제어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 판데믹 초기에 준비 및 대응 정책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후반기로 갈수록 초기에 비해 개선되어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가 증가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공급이 압도적으로 부족해 KF94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었고, 급기야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여 공급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하고 그럼에도 마스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초기 이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사회적 이슈에서 사라졌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인력, 시설, 예산, 정보, 관리 등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있을 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언론의 내용분석과 위험도 소통 등의 중요성도 확인하였다[5].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기침 에티켓 및 손씻기 등 생활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생활을 위한 방역 수칙은 보건당국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하며[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해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역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유념해야 한다[5].

2003년 사스의 출현 후 인포데믹(infodemic)의 문제는 불가피해졌고, 그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6]. 또한 신종 플루 때 사려깊지 않은 언론 보도가 불필요한 피해와 공포를 조장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으며[7], 그만큼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이 유행하고 원인 및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감염병에 대해 대중은 신문을 통해 새로운 질병에 관한 주요 정보원으로써 이용하고 있으나[8], 오늘날 언론에서 신문을 통해 전달하는 보도는 종종 선정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보도로 변질되어 사회 불안을 부추길 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한계점과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기사량이 너무 많아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그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대한 연구자들이 면밀히 분석하여 계량화하였다. 둘째, 주제어의 분류는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분류한 바, 그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즉, 주제어들이 그 내용이나 의미가 중복될 수도 있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어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보완점이 필요하여 보였다. 추후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주요 주제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체적인 추세와 경향을 분석 플랫폼 등의 전산화 방법 즉,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내용분석을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정책과 대국민 보건교육과 소통방안 등의 모색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이 연구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중심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관련 방역에 대한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세가지 신문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월요일과 목요일의 1면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 studio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따른 각 범주별 주제어 언급빈도의 관련성을 카이제곱검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코로나-19 유행기간별로 한국의 3대 신문의 1면 기사에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31.9% 순이었다.

둘째, 유행기간별 기사의 건수는 제1차 휴지기 28.5%로 가장 많았고, 비약물적 조치 기사는 제1차 휴지기 30.6%, 3Ts 제1차 유행기 28.6%로 가장 많아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셋째, 비약물적 조치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리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시설 제한운영이 17%, 영업제한 14.2%, 마스크와 손씻기 12.3% 등 순이었다. 유행기간별로 비약물적 조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넷째,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범주에서 주요 주제어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진단검사가 41.8%, 역학조사 및 병상관련이 각각 20.9%였으며, 치료제 및 백신이 16.5% 등 순이었으며, 유행기별로 3Ts(검사, 추적, 치료) 및 백신 등 주제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2020년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를 유행기간에 따른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비약물적 조치가 가장 많았고, 유행기간별로 방역조치 범주별 주요 주제어 보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References

1. Kim YJ, Yoo MS, Yoo HJ, Shin HG, Joo YG, Choi H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by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personnel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2020 (Korean)
2. Klaidman J. The effect of mass communication. Free Press, 1960
3. Lim KK, Lee MS, Hong JY, Yoo IS. Contents analysis on the health information of major daily newspaper and TV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09;10(10):2945-2951 (Korean)
4. Baek SG. Types of gossipped news and its deep structure in the Korean newspapers' coverage of the 15th general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1997;41:41-107 (Korean)
5. Lee MS. Fragmentary thoughts about code of conduct and risk communication to prevent and control COVID-19 in Korea.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020;37(1): 103-107 (Korean)
6. Park G, Bae J, Lee JH, Yun BY, Lee B. Integrated infodemic surveillance system: The case of COVID-19 in South Korea. *Stud Health Technol Inform* 2021;27(281): 1036-1040
7. Hur IS. A study on risk reporting pattern of Korean newspaper : focused on "Bird Flu" reporting in major daily newspaper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4 (Korean)
8. Kim HK, Kweon SH. A comparative study on the frame of the science news about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Focused on Chosun Ilbo and The Kyunghyang Shinmun. *Health Communication* 2011;6(1):37-53 (Korean)